



농장탐방/신진농원(산란종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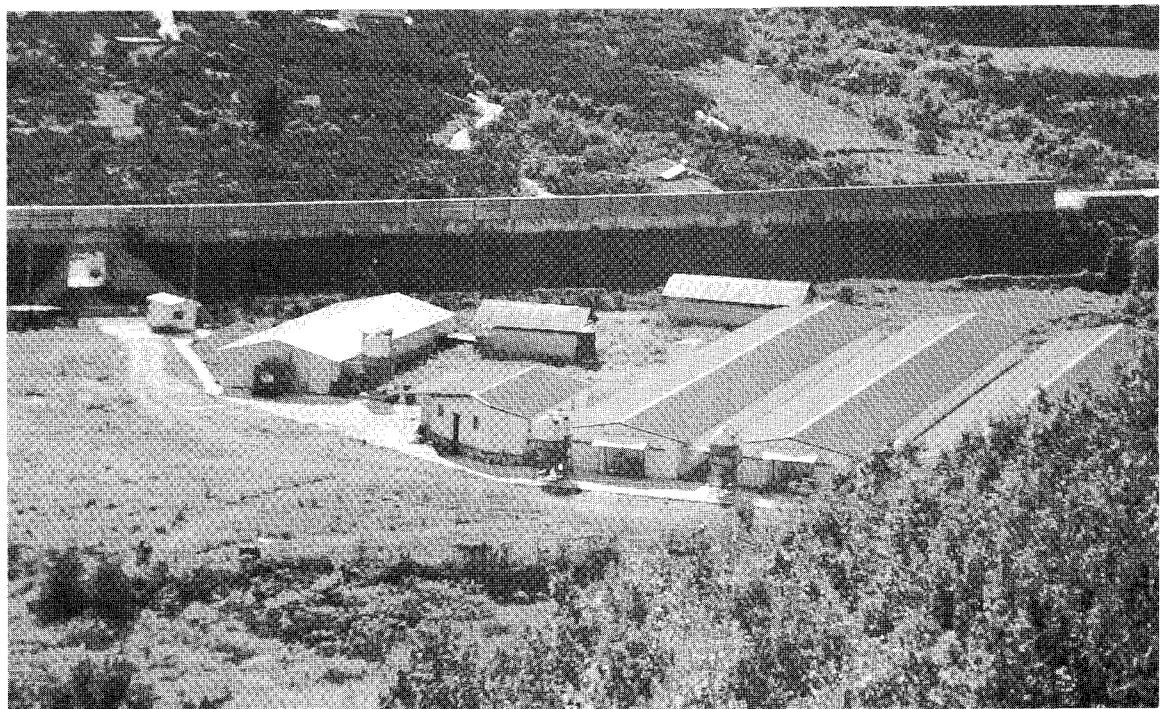
위생방역우수종계장을 찾아서…

장인 정신, 방역1등급 우수종계장 유지 밑거름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최근에 들어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AI 등 질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전의 산란율이 회복되지 않는 등 질병 발생 후유증에 의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종계의 생산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산란 종계장인 신진농원이 추백리, 가금티푸스, MG와 같은 전염병을 차단하여 2년 연속 1등급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받아 다른 농장의 귀감이 되고 있어 농장 실태를 알아보았다.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에 자리잡은 신진농원 산란종계장

1. 농장현황

우수종계장으로 인증 받은 신진농원의 종계장은 대지 7,000평에 성계사 3동 3만수(하이라인), 육추사 1동, 선란실 1동으로 980평 규모로 건립되었다. 종계장이 위치한 밀양시 정도면 두곡리는 외부와 차단되어 방역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 종계장에서 생산한 종란은 방역 차원에서 1시간 떨어진 김해시 생림면 부화장으로 옮겨져 한주 3만~4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다. 생림면 농장에는 신진농원 사무실 및 부화장 뿐만 아니라 15동의 육추장을 두어 45만수의 중추를 육성하고 있다. 중추육성은 위탁 없이 자체



△우리나라 최고의 산란종계장을 자부하는 손종현 사장

부화장에서 생산한 병아리만 사육하여 질병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중추장에서 나온 계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20만수(성계기준)의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계분탱크를 설치하였다. 이 계분탱크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발효가 가능하며, 발효시 악취가 나지 않아 민원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효시 다른 재료는 필요 없이 순수 계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탱크에서 발효시킨 계분은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한포(25kg)당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농장운영은 손종현 사장과 맏아들 손정호 차장, 안동수 농장장(종계장), 김영길 방역부장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손정호 차장은 동아대 축산과를 졸업한 후 농장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사육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동수 농장장은 어느 누구보다 종계장 사양관리에 자부심을 갖고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다. 차분한 성격의 김영길 부장은 신진농원의 전체 방역을 책임지는 등 어느 누구도 없어서는 안될 농장의 살림꾼들이다.

2. 영업소 없이 병아리 판매

신진농원에서 산란실용계 농장에 공급되는 병아리나 중추는 다른 부화장에 비하여 마진 폭이 높지 않은 대신 물량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손종현사장은 예전에는 병아리가 부족하면 가격 결정을 부화장에서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요인들이 없어져 마진폭은 줄었지만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영업소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병아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지만 신진농원은 20년간 오경농장의 협업농장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생산물량의 70%는 고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장에서 자체 주문량만 받고 별도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손사장의 말 속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비용을 줄여서 농장 경영 내실을 다지고 병아리 생산비를 낮추려는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3. 질병진단은 종류별 전문 수의사에게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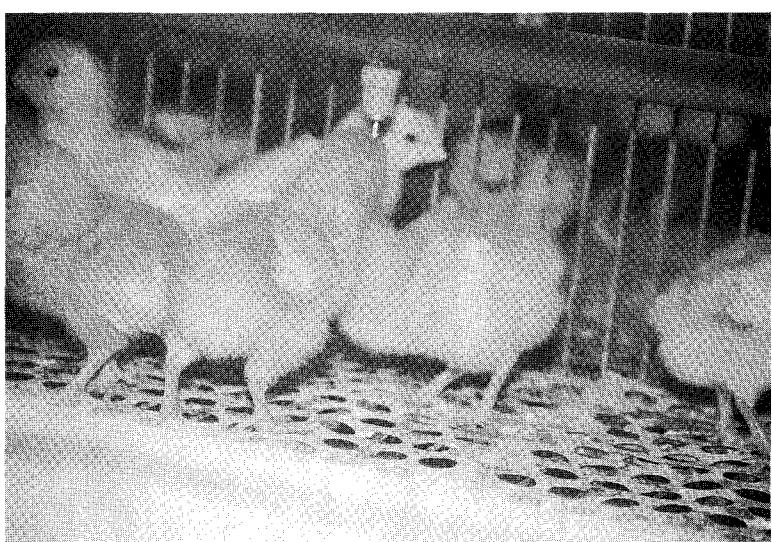
부화성적은 입란율 80%, 부화율이 43%로 다른 농장의 37%에 비하여 6% 가량 높다. 이와 같은 높은 생산성적은 신진농원만이 가진 사양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부화장에서 실시하는 혈청검사는 15년전부터 수의과학연구소(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체크해왔고, 지금은 다른 질병보다 MG free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있다. 사양관리에 있어 열대야가 심한 여름에는 부화율이 일정하지

않아 고심을 하였는데, 종란보관 온도를 일정하게 해줌으로써 부화율의 변동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냉방장치를 선란실과 이동차량에 설치할 예정이다. 자동시설에서 다른 농장과 많은 차이가 없지만 외부질병유입을 막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손종현 사장은



△양계협회와 공존을 다짐하는 신진농원 가족들(좌로부터 본회 최명욱 전무, 손종현 사장, 김영길 부장, 본회 부산경남지부 안병호 상무, 손정호 차장)



△45만수 규모의 자체 생산 병아리를 육성하고 있다.

소독약은 물과 희석후 2시간이 지나면 50% 이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원리에 착안하여, 농장입구 소독이나 기타 소독할 때마다 약품과 물을 즉석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소독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소독 회수는 1주일에 두 번씩 실시하여 혹시 모를 외부질병감염을 차단하고 있다.

질병 진단은 약품회사 수의사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질병 종류에 따라 전문 수의사를 선택하여 가장 적합한 처방을 받고 있다.

손정호 사업총괄 차장에 의하면 여름철 사양관리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정전 사고나 낙뢰로 인한 기계 고장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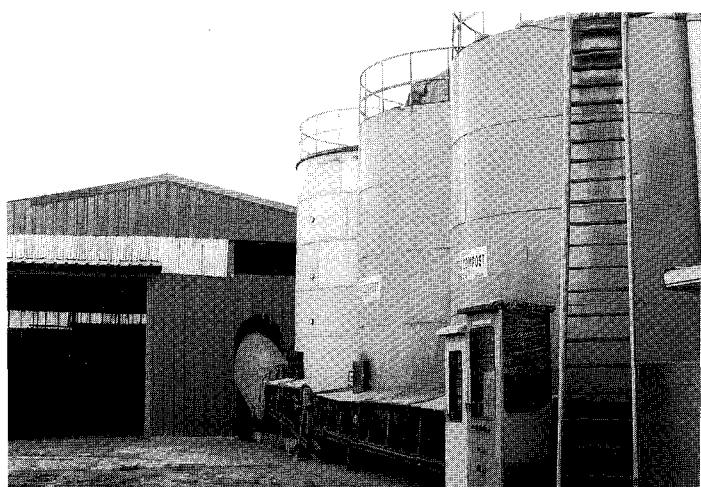
농장시설이 외국기자재이기 때문에 기계고장시 국내에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으로 직접 우편 주문하여야 하고, 간단한 고장은 직원이 고칠 수 있지만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것은 기계 기술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나 국내에서 기술을 구하기 쉽지 않아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 기자재의 국내 대리점의 서비스 보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토로 했다.

4. 농장홍보시 우수종계장 인증마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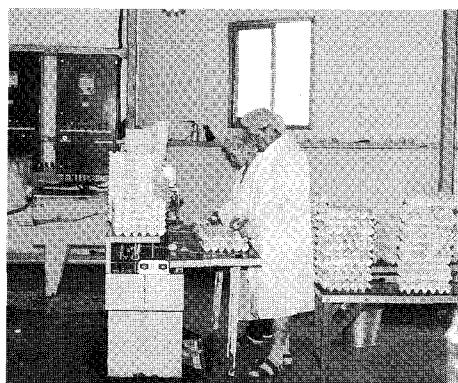
신진농원은 99년 4월 15일에 우수종계장으로 인증 받은

이후 우수 종계장을 유지하여 왔지만 그 동안 홍보가 미진하였다가 지난 8월에 인증마크가 제작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손종현 사장은 우선 인증마크가 새겨진 수건을 만들어 실용계 농장 및 업체에 보급하였고, 병아리 보급 박스나 차량 등에 마크를 사용하여 일반 병아리와 우수종계장의 병아리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 홍보용 비디오에 인증마크를 삽입하여 농장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와 더불어



△남다른 시각으로 계분처리장을 건립하여 민원발생 고민 끝!



△(좌)위생복은 외부차단 방역의 상징(종란수거모습), (우)우수종계장 인증마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원주택 운영

외부인의 농장 출입제한과 농장 홍보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 꾸준한 노력만이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된다

우수 종계장을 2년 연속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과 비용이 적지 않지만 실용계 농장에서 신진농원의 병아리를 인정하는데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는 손종현 사장은 추백리 검사시 적정 온도 유지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추백리 검사시 한겨울에도 25°C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1만수 기준을 할 때 1주일 이상의 시간 및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손사장은 아무리 많은 인건비와 힘이 들더라도 우수한 병아리를 농장에 공급하여 산란성적이 좋다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어 만족 한다지만 산란 실용계 농장이 청정화 되지 않으면 질병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우수한 병아리가 오히려 실용계 농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질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용계 농장의 질병관리가 뒷바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질병이 발생하면 일반 산란종계장 보다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지만 우수종계

장에 대한 신념은 우리나라 어느 양계인보다 강하다.

6. 장인정신을 살려야 성공한다

손종현 사장은 감별사로 시작하여 38년간 양계업에 투신하면서 그 동안의 노하우 (Know-How)를 바탕으로 농장 경영은 철저한 책임경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손사장의 인생 철학은 장인정신이다.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받았기 때문에 병아리 가격이나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종계장이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한다면 산란계 농장의 질병관리는 그만큼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수종계장을 유지하기가 무척 고되고 어렵지만 세계 제일의 병아리를 생산한다는 손사장의 말에 장인정신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의처 : 055-335-9177) ■ 양계